

투데이 칼럼

### 달리기 열풍? 달리는 삶의 기본?

**올**해 들어 언론에 '젊은 이들이 달린다!'는 논조의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당연히 고맙고 지속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기사에서 '젊은이'라 함은 주로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0대만 되어도 자격이 상실되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간다고 한다. 이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997년 IMF 구제금융(국가 부도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인원 감축이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실직했다. 당시 심신의 어려움을 달리기로 해소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른바 '달리기(마라톤) 열풍'이 급격히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라톤 폴코스 단일 대회 일반인 참가자가 1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열풍은 10여 년 이상 지속되며 국민적 생활 기조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국민 건강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일정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단체 야외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활동 자체가 혼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약 2~3년 동안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잠재된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 하나둘 모여 20~30여 명 규모의 단체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크루(Grew)'라는 명칭으로 모였으며, 기존의 클럽과는 약간 다른 형식과 규칙을 두

고 단체로 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에 폐지된 체력장 제도로 인해 학교 체육은 유명무실해졌고, 육체적으로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육체 활동이 거의 사라졌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 현실에서 육체 활동이 줄어들거나 없으면, 과체중, 비만,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건강 관리 비

용과 의료비는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며, 평생에 걸쳐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20~30대 젊은 층에서 자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즐기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서서히 선진국의 생활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기준은 여러 가지이지만,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보다 사회적, 문화적 생활상식과 삶의 양상이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주었을 때 평가된다. 달리기, 마라톤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양상을 보면 기존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 국민이 달리는 그날까지 이러한 열풍이 계속되어 국민의 삶의 기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사설

#### 해리스 한국계 인맥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약진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판세를 분석하기에 이르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계 인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리스의 동서가 한국계로 알려졌다.

그 자녀들도 전당대회에서 큰 어머니인 해리스의 인간적 면모를 알리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엘호프의 연설에, 가족사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함께 환호한다. 해리스의 동서 한국계 주디 리 박사로, 그녀의 자녀들은 직접 무대에서 큰 어머니를 응원하기도 했다.

제스퍼 엘호프는 더그 엘호프·키릴라 해리스의 조카로 한국계 주디 리 박사 자녀다. 그는 "누구도 제 큰 어머니를 비싼 진 값을 겁니다. 하지만 큰어머

나는 가족을 위한 시간은 꼭 드시죠. 요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단순한 순간들이죠."라고 말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오찬 때도 포착됐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소개도 했다. 키릴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4월 "오늘 오찬 장에는 제 가족들도 초대됐는데, 오찬 동서인 주디 리 박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해리스의 남편 더그 엘호프는 한국계 동료와 일을 하기도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사회자가 "장관님 남편과 해리스의 남편이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셨던 거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예, 제 남편이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했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대중문화 등을 거론하며 남다른 관심도 드러냈다.

#### 쫓겨진 광복절

지난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광복회가 사상 처음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에 불참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이사장이 임명되며 벌어진 사태였다. 그는 친일과 작곡가 안익태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다.

그리고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48년 정부 수립 일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취임 후에는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

48개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3대 역사 기관의 기관장도 모두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받는 학자들로 채워졌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장 등 세 사람은 대안 역사 교과서를 추진했던 '교과서포럼'의 토론회에 참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과서포럼은 '좌편향적인 역사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결성된 단체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독재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뉴라이트' 인사 중 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다며 인사 원칙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가안전보장 1차장도 '뉴라이트' 출신이다. 그가 실제로 있으면서, 한일 간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굴욕 외교'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1,5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동의했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고, 일본 정부는 일체의 독도방어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기사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과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임기를 얼마 안남긴 총리로서 이례적인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유엔 '미래정상회의'서 연설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블로디미르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베이루트 향 고속도로, 피란길 차량으로 정체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 레바논 남부 주민들의 차량이 24일(현지시각) 항구 도시 시돈에서 베이루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에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

